

202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

인천 연수구 취약계층의 보육지원 실태와 과제

- 최종보고서 -

2023. 10.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디아스포라연구소
Diaspora Institute

제 출 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 연수구 취약계층의 보육지원 실태와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박봉수

■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디아스포라연구소 소	장 박 봉 수
공동연구원	디아스포라연구소 외 부 연구원 오 선 영	
	디아스포라연구소 외 부 연구원 임 지 혜	

Contents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5
II. 취약계층 보육 관련 선행연구	
1. 취약계층 보육의 개념	11
2. 기존연구 검토	13
III. 연수구 취약계층 보육 정책 및 현황	
1. 연수구 취약계층 보육 관련 정책	19
2. 연수구 취약계층 보육 현황	36
IV. 연수구 취약계층 보육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45
2. 설문조사 결과	47
3. 심층인터뷰 결과	70
V. 결론 및 제언	
1. 종합분석	83
2. 연수구 취약계층 보육 지원을 위한 과제	85
참고문헌	89

■ 표목차

〈표 Ⅰ-1〉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육교직원 설문조사 개요	4
〈표 Ⅰ-2〉 심층인터뷰 개요	4
〈표 Ⅰ-2〉 전문가 의견수렴 개요	4
〈표 Ⅲ-1〉 영유아보육법 주요 내용	17
〈표 Ⅲ-2〉 장애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18
〈표 Ⅲ-3〉 다문화가족법 주요 내용	19
〈표 Ⅲ-4〉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주요 내용	20
〈표 Ⅲ-5〉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주요 내용	21
〈표 Ⅲ-6〉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22
〈표 Ⅲ-7〉 보육아동의 지원기준	24
〈표 Ⅲ-8〉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취약보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8
〈표 Ⅲ-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주요 내용	29
〈표 Ⅲ-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주요 내용	30
〈표 Ⅲ-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아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주요 내용	31
〈표 Ⅲ-12〉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등 이용현황	34
〈표 Ⅲ-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별 어린이집 현황	35
〈표 Ⅲ-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현황 및 아동수	36
〈표 Ⅲ-15〉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육아동 현황	37
〈표 Ⅲ-16〉 장애아보육료지원아동 어린이집별 재원현황	38
〈표 Ⅲ-17〉 다문화가정아동 어린이집별 재원현황	38
〈표 Ⅲ-18〉 외국인가정아동 어린이집별 재원현황	39
〈표 Ⅳ-1〉 설문지 구성	43
〈표 Ⅳ-2〉 응답자 일반사항	45
〈표 Ⅳ-3〉 어린이집 현황 (유형, 어린이집 소재지)	46
〈표 Ⅳ-4〉 운영 특성별 어린이집 현황	47
〈표 Ⅳ-5〉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48
〈표 Ⅳ-6〉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	50
〈표 Ⅳ-7〉 지역사회 보육관련 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및 현재 연계정도	51
〈표 Ⅳ-8〉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경험	53
〈표 Ⅳ-9〉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을 위한 필요한 지원	54

〈표 IV-10〉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보육경험	56
〈표 IV-11〉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보육을 위한 필요한 지원	57
〈표 IV-12〉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	58
〈표 IV-13〉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60
〈표 IV-14〉 연수구 보육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61
〈표 IV-15〉 원도심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	63

Ⅰ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5
[그림 Ⅲ-1] <제5차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의 비전 및 주요 과제	23
[그림 Ⅲ-2] 함께감 프로그램의 미션과 목표	33
[그림 Ⅲ-3] 인천광역시 보육아동 현황(2022.12.31. 기준)	34
[그림 Ⅲ-4]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형별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	36
[그림 Ⅲ-5]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37
[그림 Ⅲ-6]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약보육아동 현황(2023년 9월 기준)	39
[그림 Ⅳ-1] 어린이집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	49
[그림 Ⅳ-2]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	50
[그림 Ⅳ-3] 지역사회 보육관련 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및 현재 연계정도	52
[그림 Ⅳ-4]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경험	54
[그림 Ⅳ-5]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55
[그림 Ⅳ-6]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보육경험	56
[그림 Ⅳ-7]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보육을 위한 필요한 지원	57
[그림 Ⅳ-8]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	59
[그림 Ⅳ-9]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60
[그림 Ⅳ-10] 연수구 보육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61
[그림 Ⅳ-11] 원도심(취약보육)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	64

01

연구의 개요

I .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보육서비스는 단순히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경우 사회적 지원 없이는 그들이 지닌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에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함.
 - 빈곤가정 부모는 낮은 학력, 수입, 시간의 부족으로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지적·언어적 자극과 모델을 제시하지 못함. 이러한 빈곤 가정 부모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은 영유아의 교육 및 발달특성과 관련됨.
 -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타인 및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조손가정은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조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손자녀 양육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
 -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부모가 영유아기 자녀에게 적절한 보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지원이 매우 중요함 (박봉수 외, 2022).
- 미취학아동들은 보육 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이며, 이들 아동들에게 보육시설에 어떠한 서비스를 경험하는가는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¹⁾

-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은 영유아 성장 시기에 적절한 발달과업 습득과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취약계층 자녀들의 정서적·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보육취약계층이 보육기회, 과정, 결과 등 제반 보육의 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른 계층과 적극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육을 받을 기회를 얻으며, 접근한 기회 속에서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보육 경험을 할 수 있고, 보육 결과에 의해 한 사회의 성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이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 연수구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임. 그중에서도 옥련동, 선학동, 청학동 등은 연수구의 취약계층이 밀집된 곳으로, 많은 지역민이 보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서비스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 연수구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영유아들의 보육과 관련한 제반 경험들을 조사하여 취약계층보육에 필요한 요건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보육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개인적,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보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불리한 계층'으로 정의됨. 여기에는 경제적 빈곤층 및 자녀,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농어촌 거주자 및 자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이 포함될 수 있음(양연숙, 2011:70-71).

2. 연구범위

1) 대상적 범위

- 취약계층 자녀 보육 및 돌봄을 경험한 교사 및 종사자

2)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도심

3) 내용적 범위

- 취약계층 보육 및 교육 관련 이론 및 지원정책 분석
- 연수구 취약계층 자녀 보육 현황 및 실태 조사
 - 인천 연수구 보육취약계층 현장조사
 - 보육교직원 대상 취약계층 보육경험 설문조사 및 인터뷰
- 연수구 취약계층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의견수렴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취약계층 자녀 보육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자료 분석
- 취약계층 자녀 보육 관련 학술자료 분석
- 인천시 취약보육 현황 통계 자료 분석

2) 설문조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도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I-1>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육교직원 설문조사 개요

대상	인원수	조사 유형
원도심 보육교직원	188명	대면 설문조사

3) 심층인터뷰

-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의향을 밝힌 보육교직원 3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표 I-2> 심층인터뷰 개요

조사 대상	인원수	조사 유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	대면 심층인터뷰
어린이집 원장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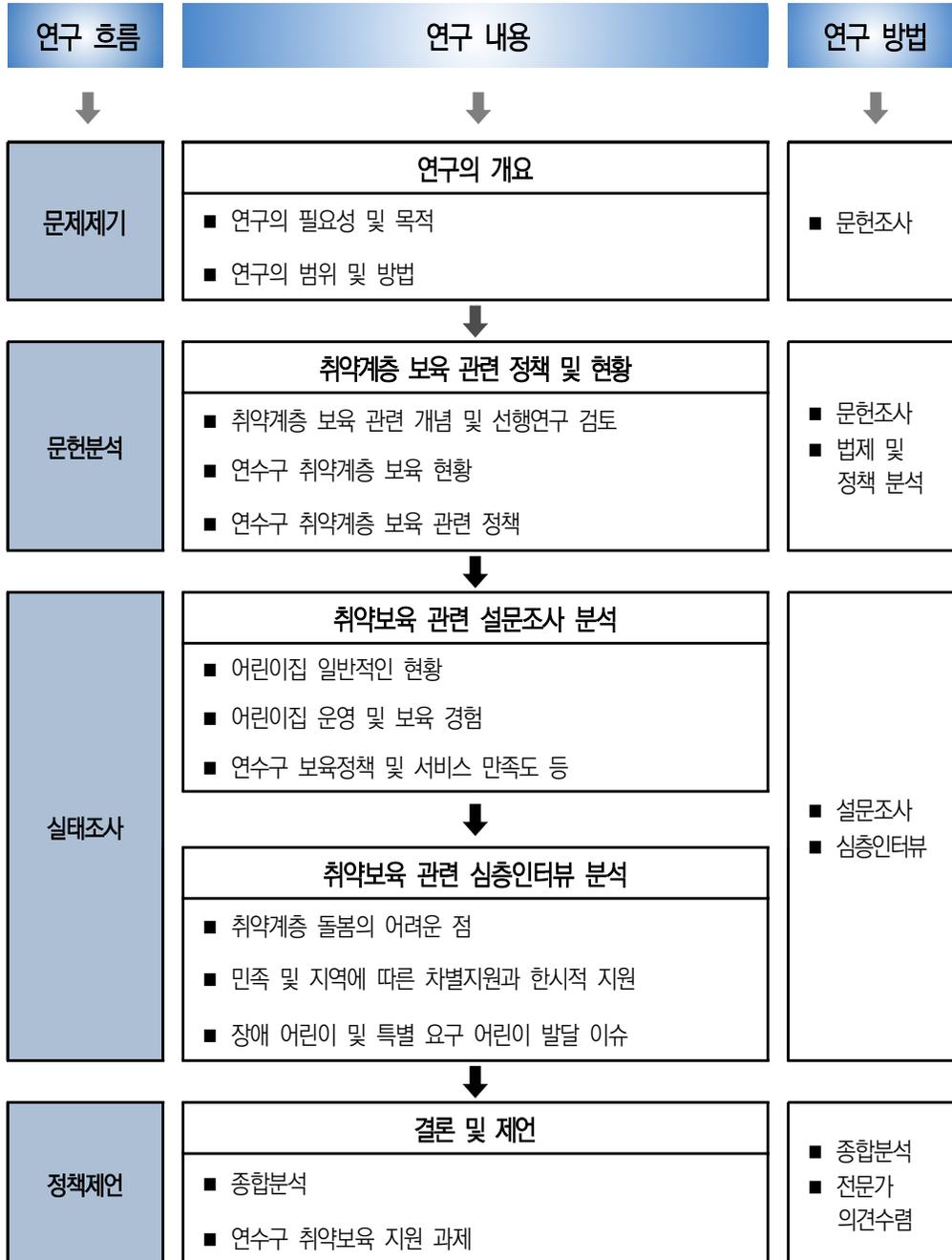
4) 전문가 의견수렴

- 본 연구의 보고회에 전문가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의견을 수렴함.

<표 I-2> 전문가 의견수렴 개요

조사 대상	인원수	조사 유형
보육현장 전문가	1명	최종보고회(토론회)
평생교육·아동교육전문가	1명	대면 의견수렴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구성 및 수행체계를 통해 진행함



[그림 I-1] 연구 흐름도

02

취약계층 보육 관련 선행연구

Ⅱ. 취약계층 보육 관련 선행연구

1. 취약계층 보육의 개념

- 취약보육이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하여금 영유아들의 편견 없는 사고와 태도, 행동 함양을 지향하고 특별한 영유아의 요구를 반영한 보육을 의미함.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06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전문개정 2007. 10. 17.]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2012년부터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의 보육활동을 지원하고 일반 영유아의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편견없는 보육, 다문화 보육, 장애아 보육, 시간연장형 프로그램 매뉴얼 등 총 4종으로 구성된 취약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음.
 -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 담당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2022),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2022)'까지 개발된 상태임.

2. 기존연구 검토

■ 부모의 의사소통 능력이 보육에 미치는 영향 관련

-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내용은 다문화가정 자녀 영유아가 최초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가 가정에서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의 언어표현과 조직력이 늦게 발달한다는 문제가 있음.
- 다문화 영유아의 기관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변인 중 부모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부모의 언어 능력은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 정보 접근성에서도 결정적임(박은정 외, 2020).
- 특히, 영유아기 시기에 이중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가족 형성 초기인 영유아기는 가정 내 언어의 기틀을 구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며(Abdelilah-Bauer, 2016), 다문화 영유아는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에 노출됨에 따라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이 중요함.
 -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인식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교육이 요구됨
 - 부모 상담이나 교육 또는 양육 지원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서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에서 중요함을 의미함(박은정, 2022).
- 특히 부모의 한국어/이중언어 구사 능력 매우 중요함.
 - 한국어/이중언어 구사 능력은 자존감, 의사소통, 정보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양육에서 긍정적인 정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과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갈등 관련

- 보육교직원들의 보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인식은 1) 어린이집 입소시기에 따라 필요한 적응 시간 다름, 2) 자존감 여부에 따라 어머니 나라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름, 3) 어머니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활 습관 차이 보임, 4) 타문화 편견 해소를 위한 다문화 보육 요청, 5)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교육 필요로 나타남.
- 인천 서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보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협력 및 갈등 양상은 1) 무시당한다는 선입견, 한국어 부족 등으로 낮은 자존감을 보임, 2) 한국어 이해 부족으로 보육교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음, 3) 모든 자녀 문제를 한국어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4) 자녀 양육 방법, 어린이집 행정절차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함, 5) 다문화가정 부부 간 신뢰의 부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가정의 의사소통 창구를 복잡하게 만듦, 6) 부모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낮음, 7) 다문화가정 부모들 간의 동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양육 정보 교류에 도움을 줌으로 나타남.

■ 장애 발견 및 진단 관련

- 장애 영유아 보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자녀의 장애에 대한 인정이 어려운 점과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자녀에게 적합한 치료와 교육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임.
 - 장애위험(at-risk) 아동이란 현재 장애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교육기관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로 발전될 상황에 놓인 아동으로, 학습장애위험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자폐범주성장애아동 등이 포함됨(김우리, 김지연, 2016:2).

- 유아기부터 장애위험 유아의 조기선별은 의뢰-진단-중재의 첫걸음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하는 영유아를 발견하고 의뢰하는 과정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박체희 외, 2021:364).
-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여전히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분명한 실정이며, 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지원역량도 부족한 실정임(최윤선 외, 2020:3).
- 장애위험 영유아 담당 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교수방법 및 전문지식 부족이 보고되어, 인력지원이나 부모와의 협력 이상으로 교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상황임(배민정, 2020:29).
 - 교사들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특히 부모에게 보고하면서 전문지식의 부재로 전문성이 의심받거나 신뢰 관계의 무너짐을 우려하고 있음.
- 만 2세 어린이집 취원율이 높다는 점을 볼 때, 자폐성 장애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교육이 필요함. 특히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장애를 이른 시기 발견하고, 빠른 진단을 돕는 일이 중요함. 이에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하고, 진단 및 치료기관과 연계하며, 교사가 영유아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강은진 외, 2022:80).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관과 인력 확충 관련

- 현재 법 제도상으로 장애아를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만들도록 제도적 정비가 되어 있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행·재정 지원 시스템, 전달체계, 사회적 풍토, 인력구조 등의 기본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서비스 간의 연계도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시설 및 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며, 특수교사를 구하기 어렵거나, 특수교사의 자격과 질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함.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 영유아의 경우,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담당 주치의를 배정하고, 생애 초기부터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단위 센터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 영유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 및 파견하여 어린이집 교사를 지원하는 방식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지역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와 보건의 통합적인 연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건소는 장애 판정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 시스템과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박창현 외, 2019:225).
- 영유아 시기에는 장애진단을 받지 않는 경계 선상의 영유아들도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으로 집계되므로, 위험군의 영유아들을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통합하여 교육하고,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03

취약계층 보육 정책 및 현황

Ⅲ. 취약계층 보육 정책 및 현황

1. 연수구 취약계층 보육 관련 정책

1)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9606호]

-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표 Ⅲ-1> 영유아보육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2조 (정의)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8218호] (약칭: 장애아동복지법)

-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표 Ⅲ-2> 장애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2조(정의)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 (보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영유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

■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약칭: 다문화가족법)

-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표 Ⅲ-3> 다문화가족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외국인처우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결혼이민자등: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본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의2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

2) 인천광역시 제도 및 정책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7005호]

-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표 Ⅲ-4>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을 말한다. 1.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병가,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3.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4.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운영 개선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제6863호]

○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복지증진 시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함.

<표 Ⅲ-5>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사업 12.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

■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615호]

○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표 Ⅲ-6>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제4조 (차별금지)	장애인가정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출산 및 양육·보육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 지원 사업 3. 양육 지원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

■ 인천광역시 제5차 중장기 보육계획(2022~2026)

- 인천광역시 제5차 중장기 보육계획(2022~2026)의 비전은 보육패러다임,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방향, 인천광역시 보육정책 및 여건, 인천광역시민의 보육욕구, 보육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본 계획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 여러 가지 비전안에 대해 시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보육가치 높이고! 보육신뢰 높이고!"로 설정함.
-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방향, 인천광역시 보육정책 및 여건, 인천광역시민의 보육욕구, 보육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 보육계획 등을 고려하면서 본 계획이 추구하는 가치에 입각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현장',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보육 협력'의 4대목표를 도출하였음.



[그림 Ⅲ-1] <제5차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의 비전 및 주요 과제

■ 인천광역시 2023년 취약계층 관련 보육사업

○ [보육료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24시간 보육료 지원

-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 「2023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부록 p.96)에 의한 법정 저소득층 아동 중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 지원기준: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육료 50% 지원

<표 Ⅲ-7> 보육아동의 지원기준

(단위: 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비 고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257,000	226,000	187,500	140,000	140,000	140,000	

자료: 인천광역시(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 지원원칙: 월별로 지원하며, 기타 사항은 2020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아이행복카드-특수시책사업관리(pp.139~152) 업무편람을 준용함.

○ [보육료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등 필요경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 「2023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부록 p.96)에 의한 법정 저소득층 만 0~4세 아동,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 지원기준: ① 2~4세: 특별활동비, ② 0~1세: 현장학습비·부모부담행사비, ③ 18개월 이상: 18개월이상 영유아 중 특별활동 참여자, ④ 2~4세: 현장학습비·부모부담행사비·시도특성화비용(개인용 교재교구비), ⑤ 0~4세: 차량운행비
- 지원분야: 필요경비(입학준비금, 아침·저녁 급식비는 제외)

○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등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만5세아 2017년생: 관내 거주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한 자(체류등록)
- 지원기준
 - ① 보육료: 어린이집 만5세아 정부지원단가 동일 기준 지원(월 280천원)
 - ② 부모부담보육료: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차액 지원(월 113천원)
 - ③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월55,000원~60,000원, 입학(새학년) 준비금 연 100,000원, 현장학습비·부모부담행사비·시도특성화비용(개인용 교재교구비) 월 77,000원, 차량운행비 월 30,000원
- 지원분야: 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필요경비(아침·저녁 음식비는 제외)
- 지원원칙: 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 「2023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 특수보육 어린이집 등 운영 지원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① 차량운영비: 정부지원 단가 외 월 2,100천원(34인승), 월 1,800천원(12인승)을 지원(기사인건비 포함)
- ② 특수교사 수당: 정부지원 단가 외 월 200천원을 지원

③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당: 정부지원 단가 외 월 100천원 지원

④ 치료사 수당: 정부지원 단가 외 월 100천원 지원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써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① 치료사 인건비: 교사대 아동비율 및 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중 장애아 9명당 1명의 치료사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정규인력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한함), 현원이 감소할 경우 장애아동 5명까지 지원할 수 있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에게 치료사 수당을 월 40만원 지원할 수 있음

② 특수교사 수당: 정부지원 단가 외 월 100천원을 지원할 수 있음

③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당: 정부지원 단가 외 월 50천원을 지원할 수 있음

④ 기타지원(정부지원어린이집 포함): 차량운영비 월 300천원

○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 지원대상: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3~5세 장애아반)

- 지원기준: 3~5세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 지원(개소당 최대 3명)

- 지원내용: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① 1일 4시간(월~금, 주20시간) 근무 지원 기준

② 인건비 1,042천원/월

- ③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일부(57,850원/월, 국비지원 보조교사와 동일금액) 지원/퇴직적립금 등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자격조건: 보육교사, 특수교사/장애아보육 직무과정 이수(예정)자
- 업무내용: 장애아반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 인천시는 2022년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사업을 첫 시행한 후, 2023년 4억 3,680만원 예산으로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고려인의 만 1~4세 미취학아동의 보육료로 월 20만원을 지원함.
- 시행단체의 신청 자격은 연수·남동구 소재 보육관련 시설(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교사실 등)을 갖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임.
- 지원조건은 ①부 또는 모와 아동 모두 인천 거주, ②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이 F-1(동반),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2(방문취업동포), ③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④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사실증명)발급 가능임.
-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첫 시행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피해 7~12월 실시한 결과 3개 시행단체(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한샘외국인지원센터,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만 1~4세 180여명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했음.
-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담당 부서는 인천광역시 가족다문화과 외국인생활지원팀임.

3) 연수구 지원정책

○ 인천광역시 기초자치구의 취약보육 관련 조례 현황(2023년 8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남.

- 다문화가정아동과 관련한 조례는 인천광역시 모든 기초자치구에 제정되어 있지만, 장애아동과 관련한 조례는 연수구와 부평구에만 제정되어 있음.

<표 Ⅲ-8>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취약보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취약보육 관련 주제 구분			
	보육	어린이	다문화가정아동	장애아동
중구	1	4	1	
동구	1	4	1	
미추홀구	1	2	1	
연수구	1	3	1	1
남동구	1	5	1	
부평구	1	3	1	1
계양구	1	3	1	
서구	1	5	1	
강화군	1	2	1	
옹진군	1	1	1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

- 연수구의 아동 및 취약보육 관련 조례는 총 6건을 나타남.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400호]

-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표 Ⅲ-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21조(기능)	<p>(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운영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0.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제공 및 장난감·도서·영상물 대여 11.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

■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306호]

-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표 Ⅲ-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등 상담 4.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7.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지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371호]

-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표 Ⅲ-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2조(정의)	<p>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

■ 연수구 취약계층 보육 정책(인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인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통합보육어린이집순회지원과 다문화어린이집순회지원의 취약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함께가치(장애아통합보육어린이집순회지원) 프로그램은 연수구 관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질 높은 장애 통합 환경 조성,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삶 지원, 장애영유아 가족의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영유아 및 교직원, 부모에게 적절한 교육, 정보제공,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 장애통합반 치료사 파견: 통합 환경안에서 보육 중인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에게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절한 치료사를 파견하여, 적절한 조치와 교육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모
- 장애통합 교사 지원: 장애통합과 관련된 교육 제공, 스트레스관리지원(장애통합 교사로서의 직무만족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교수학습방법지원(장애영유아 통합보육 현장 모니터링 및 코칭을 실시하여 장애통합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
-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장애영유아를 형제로 둔 비장애영유아가 겪을 수 있는 소외감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상 실현을 도모

- 일반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 발달지원 슈퍼비전: 보육 현장에서 발달이 지연되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원활한 조기 개입을 위해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중재 방법을 지원
- 장애인식개선: 보육교직원과 일반 시민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

- 함께감(다문화어린이집순회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는다.”의 원칙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식하여 모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함.

미션	어울림, 공감, 감동의 육아환경을 창조하는 연구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의 공평한 출발선을 지원하며 아동권리를 실현 · 다문화 부모에게 자녀 및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고충 해소로 근무환경 개선 · 연구구형 다문화보육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 협업 체계 구축 및 운영

[그림 Ⅲ-2] 함께감 프로그램의 미션과 목표

- 다문화 영유아 발달지원

- ‘다름’이랑 ‘차이’랑 톡talk톡! (꿈을 그리多): 만 4~5세 다문화 유아 언어 개별화 교육 (그림책지도사 파견)

- 다문화 영유아 밀집 어린이집 운영지원

- 보육교사 연구모임: 교수학습 방법,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 모니터링 및 맞춤 지원: 다문화 보육 모니터링

- 다문화 가정 지원

- 정보지 번역 서비스: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번역 지원

2. 연수구 취약계층 보육 현황

1) 인천시 영유아 및 보육아동 현황

○ 2022년 12월 기준, 인천광역시 영유아 인구수는 총 131,146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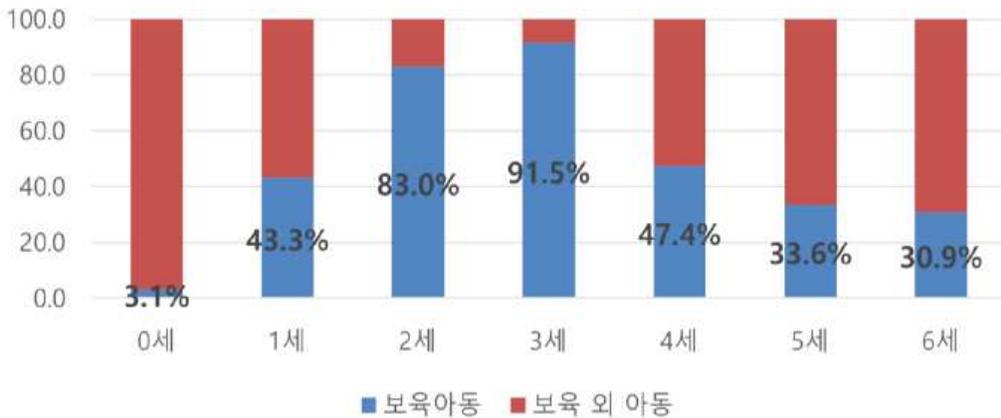
- 어린이집 영유아는 62,200명, 유치원 영유아는 35,539명, 시설미이용 영유아는 33,407명임.

<표 Ⅲ-12>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등 이용현황

(2022.12.31.기준 / 단위: 개소, 명)

구 분	전체 영유아 (만0~6세)	어린이집		유치원(2022.4.1.)		가정보육
		시설수	이용아동	시설수	이용아동	
인천시	131,146	1,697	62,200	394	35,539	33,407

자료: 인천광역시(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자료: 인천광역시(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그림 Ⅲ-3] 인천광역시 보육아동 현황(2022.12.31. 기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육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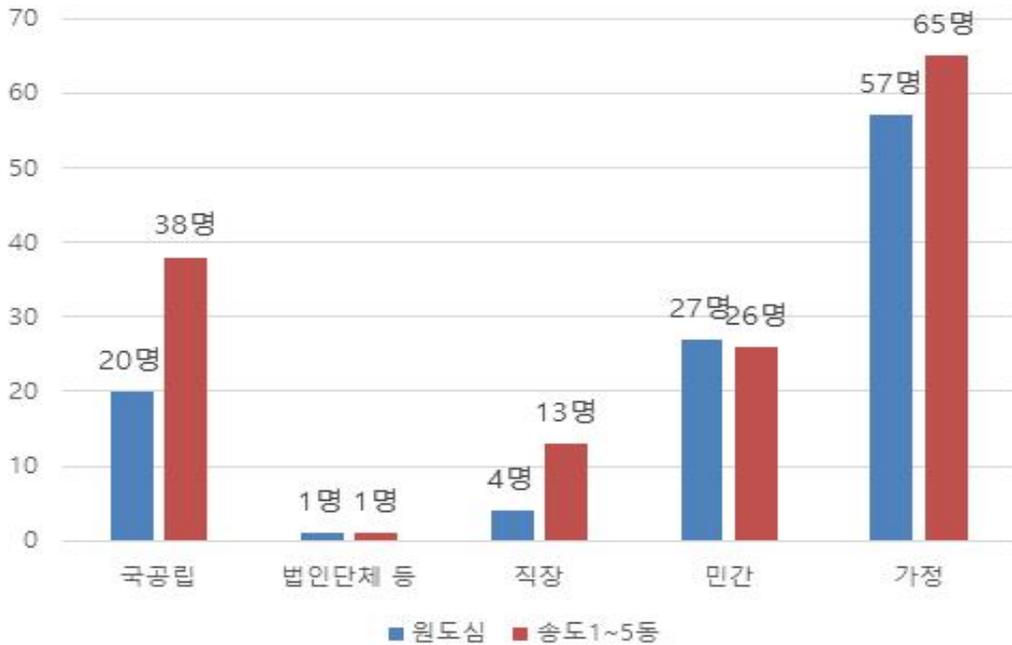
○ 2023년 9월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수는 총 252개소로 나타남.

- 국공립 어린이집은 58개소,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2개소, 직장 어린이집은 17개소, 민간 어린이집은 53개소, 가정 어린이집은 122개소임.

<표 Ⅲ-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별 어린이집 현황

구분	어린이집 시설 현황					
	계	국·공립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계	252	58	2	17	53	122
옥련1동	11	1	0	0	4	6
옥련2동	13	2	0	1	3	7
선학동	8	2	0	0	4	2
연수1동	9	3	0	0	0	6
연수2동	12	1	0	2	2	7
연수3동	10	1	0	0	2	7
청학동	8	1	1	0	5	1
동춘1동	13	7	0	0	4	2
동춘2동	14	1	0	0	3	10
동춘3동	11	1	0	1	0	9
송도1동	35	5	0	5	12	13
송도2동	19	4	0		11	4
송도3동	31	11	0	6	0	14
송도4동	22	11	0	2	3	6
송도5동	36	7	1	0	0	28

자료: 보육정책DW시스템 재구성(<https://stat.childcare.go.kr/main/main.do?isMainPage=Y>)



[그림 Ⅲ-4] 인천광역시 연구구 유형별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

○ 2023년 9월 기준, 인천광역시 연구구 보육아동 수는 총 8,315명으로 나타남.

-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2,526명,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116명, 직장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777명, 민간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2,917명, 가정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1,979명임.

<표 Ⅲ-14> 인천광역시 연구구 어린이집 현황 및 아동수

구분	계	국·공립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개소	252	58	2	17	53	122
정원(명)	10,585	3,013	148	1,165	3,914	2,345
현원(명)	8,315	2,526	116	777	2,917	1,979
정원충족률(%)	78.6	83.8	78.4	66.7	74.5	84.4

자료: 보육정책DW시스템 재구성(<https://stat.childcare.go.kr/main/main.do?isMainPage=Y>)

<표 Ⅲ-15>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육아동 현황

유형별	영·유아 보육아동			
	계	만0~2세	만3~5세	만6세 이상
소 계	8,315	5,724	2,573	8
국공립	2,526	1,545	978	3
법인·단체등	116	56	59	1
직 장	777	480	287	10
민 간	2,917	1,664	1,249	4
가 정	1,979	1,979	0	0

자료: 보육정책DW시스템 재구성(<https://stat.childcare.go.kr/main/main.do?isMainPage=Y>)



[그림 Ⅲ-5]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 및 장애아 보육아동 현황

○ 2023년 9월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정아동 및 외국인가정아동, 장애아동은 총 591명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아동은 108명, 외국인가정아동은 361명, 장애아동은 122명으로 나타남.

<표 Ⅲ-16> 장애아보육료지원아동 어린이집별 재원현황

구 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계	122	0	0	5	28	49	32	6	0	0
국공립	58	0	0	0	13	22	20	3	0	0
법인·단체 등	5	0	0	0	0	3	1	1	0	0
직 장	0	0	0	0	0	0	0	0	0	0
민 간	59	0	0	5	15	24	11	2	1	1
가 정	0	0	0	0	0	0	0	0	0	0

자료: 보육정책DW시스템 재구성(<https://stat.childcare.go.kr/main/main.do?isMainPage=Y>)

<표 Ⅲ-17> 다문화가정아동 어린이집별 재원현황

구 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108	15	27	28	14	9	15
국공립	32	3	8	8	4	4	5
법인·단체 등	1	1	0	0	0	0	0
직 장	2	0	0	1	0	0	1
민 간	50	1	11	14	10	5	9
가 정	23	10	8	5	0	0	0

자료: 보육정책DW시스템 재구성(<https://stat.childcare.go.kr/main/main.do?isMainPage=Y>)

<표 Ⅲ-18> 외국인가정아동 어린이집별 자원현황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361	36	75	92	65	50	43
국공립	86	6	20	17	14	14	15
법인·단체 등	8	0	1	4	1	0	2
직장	6	0	1	2	0	3	0
민간	189	9	30	41	50	33	26
가정	72	21	23	28	0	0	0

자료: 보육정책DW시스템 재구성(<https://stat.childcare.go.kr/main/main.do?isMainPage=Y>)

※ 이주노동자가정 2명(법인·단체등 1세 1명, 가정 2세 1명), 새터민가정 1명(민간 2세 1명) 포함



[그림 Ⅲ-6]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약보육아동 현황(2023년 9월 기준)

04

취약계층 보육 실태 분석

IV. 취약계층 보육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 대상자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연수구 원도심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함.

2) 조사 설계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질문지는 인천광역시(2022)의 검사도구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진의 2차례 회의와 연수구 보육교직원 2인 대상의 예비 조사를 통해 외적 타당도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함.
- 본 연구의 도구는 목적에 맞게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어린이집 현황 5문항, 응답자 특성 5문항, 다문화 영유아 보육 등의 보육 경험에 대한 9문항, 보육정책요구 2문항, 자유로운 의견 1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됨.

<표 IV-1> 설문지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문항 수
어린이집 현황	소재지, 특성 등	5문항
응답자 특성	연령, 성별, 근무기간 등	5문항
보육 경험	장애아 영유아 보육, 다문화 영유아 보육 등 경험	9문항
보육정책요구	보육정책 만족도 등	2문항
자유의견	보육환경 및 지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1문항
총 문항 수 20문항		

-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

으며 인터뷰에 참여할 의향을 밝힌 보육교직원 3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 인터뷰 참여자들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취약계층의 보육 현황 및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8월9일부터 10월11일까지임.
 - 설문조사: 2023년 8월9일~24일
 - 심층인터뷰: 2023년 9월22일, 10월11일
- 본 조사는 인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행사 시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연구진이 직접 조사원으로 활동함.
-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포하여 19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한 총 18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함.
- 유효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부호화(Data coding)한 후,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6.0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맞게 통계처리 하였음.

4) 조사의 한계

-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를 연수구 원도심의 보육교직원으로 국한하였다는 점, 응답자 중에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2. 설문조사 결과

1) 어린이집 일반적인 현황

■ 일반적 사항

○ 인천 연수구 원도심 보육실태 조사를 위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188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가 33.6%(63명)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5.5%(48명), 30대 15.4%(29명), 20대 9.6%(18명), 60대 3.7%(7명)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응답자 100% 모두가 여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겸직여부는 91.5%에 해당하는 172명이 겸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의 8.5%에 해당하는 16명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 응답자 일반사항

구 분		총 계	
		N	%
전체		188	100.0
연령	20대	18	9.6
	30대	29	15.4
	40대	63	33.6
	50대	48	25.5
	60대	7	3.7
	무응답	23	12.2
성별	남성	0	0.0
	여성	188	100
겸직여부	겸직하고 있지 않음	172	91.5
	보육교사	11	5.9
	간호사	1	0.5
	기타 : 연장반교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4	2.1

■ 어린이집 유형, 소재지 현황

○ 응답자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민간어린이집이 52.6%(99명), 가정어린이집이 39.4%(74명), 국공립어린이집이 8.0%(15명)으로 나타남

- 근무하는 어린이집을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선학동 29.7%(56명)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동춘2동 17.0%(32명), 동춘1동 13.3%(25명), 동춘3동 12.2%(23명), 청학동 6.9%(13명), 옥련1동 6.4%(12명), 옥련2동 5.9%(11명), 연수2동 4.3%(8명), 연수3동 2.7%(5명), 연수1동 0.5%(1명) 순으로 나타남.

<표 IV-3> 어린이집 현황 (유형, 어린이집 소재지)

구 분		총 계	
		N	%
전체		188	100.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5	8.0
	사회복지법인	0	0.0
	민간	99	52.6
	가정	74	39.4
	직장	0	0.0
	협동	0	0.0
	법인단체	0	0.0
어린이집 소재지	옥련1동	12	6.4
	옥련2동	11	5.9
	선학동	56	29.7
	연수1동	1	0.5
	연수2동	8	4.3
	연수3동	5	2.7
	청학동	13	6.9
	동춘1동	25	13.3
	동춘2동	32	17.0
	동춘3동	23	12.2
	무응답	2	1.1

■ 어린이집 운영특성

- 보육교직원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특성별 운영형태를 다중응답 한 결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33.6%인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야간연장 20.9%(51명), ‘장애아통합과 인천형 어린이집’ 각각 17.6%(43명), 방과후 4.1%(10명), 시간제보육 3.7%(9명), 영아전담 2.5%(6명)순으로 나타남.

<표 IV-4> 운영 특성별 어린이집 현황

구 분		총 계	
		N	%
어린이집 운영 특성 (다중응답)	영아전담	6	2.5
	장애아통합	43	17.6
	공공형	82	33.6
	방과후	10	4.1
	야간연장	51	20.9
	인천형	43	17.6
	시간제보육	9	3.7

2)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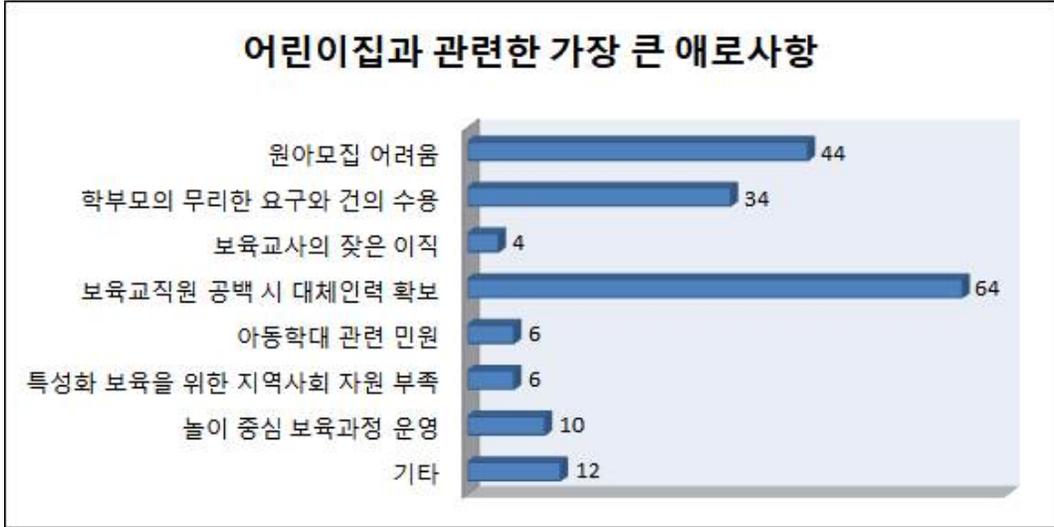
■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 연수구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들은 ‘보육교직원 공백 시 대체인력 확보’라는 응답이 35.6%(64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원아모집 어려움’이 24.2%(44명),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건의수용’이 18.9%(34명),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이 5.6%(10명), ‘아동학대 관련 민원, 특성화보육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부족’이 각각 3.3%(6명),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이 2.2%(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외국인과의 소통’, ‘외국인 친구들의 놀이지도와 사회관계’, ‘외국인아동을 위한 통역 및 시스템 부족’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있었음.

<표 IV-5>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구 분	N	%
전체	180	100.0
원아모집 어려움	44	24.4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건의 수용	34	18.9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	4	2.2
보육교직원 공백 시 대체인력 확보	64	35.6
아동학대 관련 민원	6	3.3
특성화 보육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부족	6	3.3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	10	5.6
기타	12	6.7

기타의견 : 외국인과의 소통, 외국인 친구들의 놀이지도와 사회관계, 외국인 아동을 위한 통역 및 시스템 부족



[그림 IV-1] 어린이집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

■ 어린이집 운영 관련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0%(46명)가 ‘대체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현재 인천시와 연수구가 대체교사 및 대체교사 인력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는 대체교사 지원을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다음 순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19.2%(34명),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지원’ 12.4%(22명), ‘어린이집 보육환경 및 시설, 교구개선 지원’ 11.3%명(20명), ‘영유아 문제행동 상담’ 10.7%(19명), ‘기타 교직원의 대체인력 지원’ 9.6%(17명), ‘교사연수 및 직무교육기회 확대’ 4.0%(7명), ‘보육교직원 상담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체험활동시설 및 체험활동비 등)’ 각 2.8%(5명)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 ‘원아모집’에 대한 어려움으로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IV-6>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

구 분	N	%
전체	177	100.0
보육교직원 상담지원	5	2.8
교사연수 및 직무교육기회 확대	7	4.0
대체교사 지원	46	26.0
어린이집 보육 환경 및 시설, 교구 개선 지원	20	11.3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34	19.2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체험활동시설 및 체험활동비 등)	5	2.8
영유아 문제행동 상담	19	10.7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지원	22	12.4
기타 교직원의 대체인력 지원	17	9.6
기타	2	1.2

기타의견 : 원아모집



[그림 IV-2]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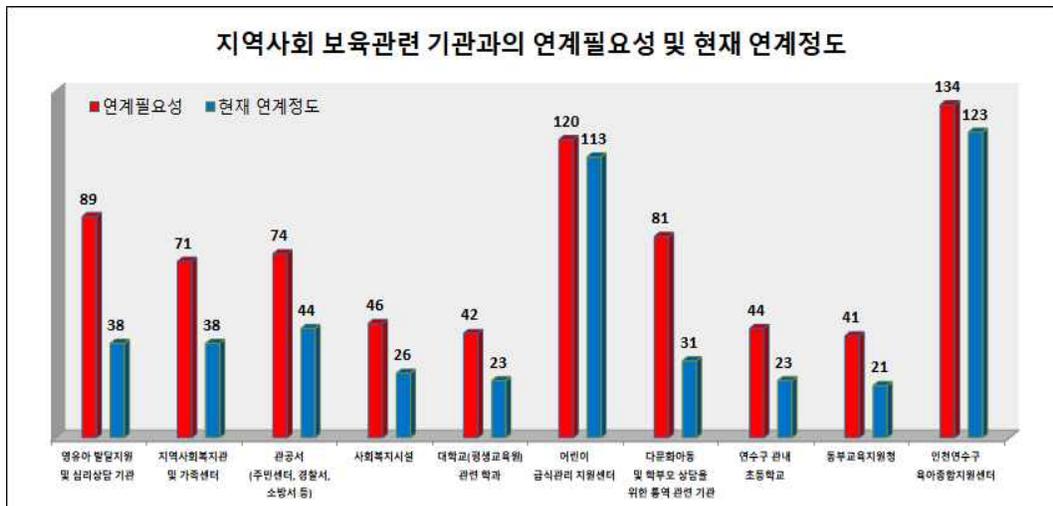
■ 어린이집 보육 관련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각 지역사회 보육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보육관련 기관 중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3점 만점 기준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7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6점, 영유아 발달지원 및 심리/상담기관 2.4점 순으로 지역연계 필요성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기관과의 현재 연계협력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3점 만점에 2.6점으로 필요성 인식과 연계 협력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그 외 기관의 경우 필요성 인식에 비해 연계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영유아발달지원 및 심리상담기관의 경우 연계 필요성이 3점 만점에 2.4점으로 높았으나 현재 연계 정도는 3점 만점에 2.0점으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그 외 다문화아동 및 학부모 상담을 위한 통역 관련 기관, 관내 초등학교, 동부교육지원청과 등과는 현재 연계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V-7> 지역사회 보육관련 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및 현재 연계정도

구 분	연계필요성				현재 연계정도			
	낮음	보통	높음	평 균	낮음	보통	높음	평 균
	N %	N %	N %		N %	N %	N %	
영유아 발달지원 및 심리상담 기관	16 8.5	83 44.2	89 47.3	2.4	33 17.6	117 62.2	38 20.2	2.0
지역사회복지관 및 가족센터	15 8.0	102 54.2	71 37.8	2.3	32 17.0	118 62.8	38 20.2	2.0
관공서 (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	18 9.6	96 51.0	74 39.4	2.3	38 20.2	106 56.4	44 23.4	2.0
사회복지시설	35 18.6	107 56.9	46 24.5	2.1	38 20.2	124 66.0	26 13.8	1.9

구 분	연계필요성				현재 연계정도			
	낮음	보통	높음	평 균	낮음	보통	높음	평 균
	N %	N %	N %		N %	N %	N %	
대학교(평생교육원) 관련 학과	39 20.7	107 57.0	42 22.3	2.0	51 27.1	114 60.6	23 12.2	1.9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8 4.3	60 31.9	120 63.8	2.6	6 3.2	69 36.7	113 60.1	2.6
다문화아동 및 학부모 상담을 위한 통역 관련 기관	32 17.0	75 39.9	81 43.1	2.3	65 34.6	92 48.9	31 16.5	1.8
연수구 관내 초등학교	36 19.1	108 57.5	44 23.4	2.0	55 29.3	110 58.5	23 12.2	1.8
동부교육지원청	41 21.8	106 56.4	41 21.8	2.0	60 31.9	107 56.9	21 11.2	1.8
인천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7 3.7	47 25.0	134 71.3	2.7	7 3.7	58 30.9	123 65.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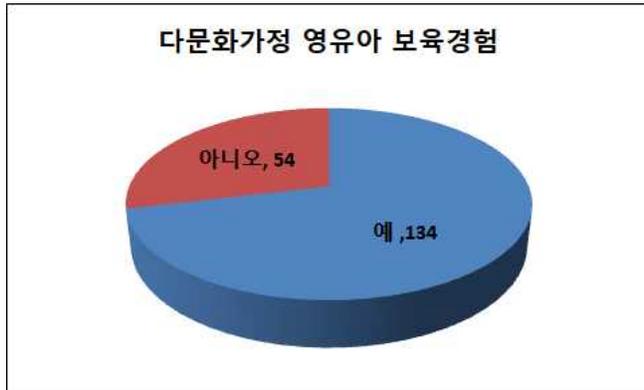
[그림 IV-3] 지역사회 보육관련 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및 현재 연계정도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경험

- 현재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보육하고 계시거나 보육해보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1.3%(134명)이 보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다문화 보육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의 1순위에서는 개별 알림장, 학부모 전달사항 등 통번역 서비스 의사소통 지원 등이 32.1%(4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집중 지원이 39.8%(40명)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및 언어발달을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가족지원서비스이 11.9%(16명), 다문화가정 영유아 담당 보조인력 지원이 7.5%(10명), 재원 중인 다문화 학부모 대상 어린이집 설명회 6.0%(8명),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지원, 다문화가정 보육에 관한 원장 및 교사교육 지원이 각 4.5%(6명),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가 1.5%(2명)순으로 나타남

<표 IV-8>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경험

구 분		N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경험	예	134	71.3
	아니오	54	28.7
	합 계	1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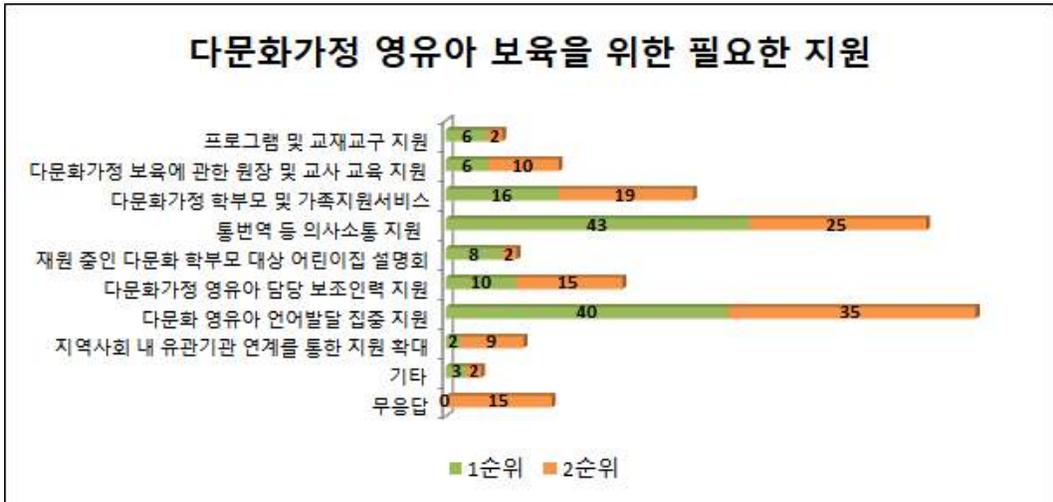
[그림 IV-4]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경험

<표 IV-9>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을 위한 필요한 지원

구 분	1순위	2순위
	N(%)	N(%)
전체	134(100.0)	134(100.0)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지원	6(4.5)	2(1.5)
다문화가정 보육에 관한 원장 및 교사 교육 지원	6(4.5)	10(7.5)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가족지원서비스	16(11.9)	19(14.2)
통번역 등 의사소통 지원 (개별알림장, 학부모 전달사항 등 번역 서비스 지원 등)	43(32.1)	25(18.7)
재원 중인 다문화 학부모 대상 어린이집 설명회	8(6.0)	2(1.5)
다문화가정 영유아 담당 보조인력 지원	10(7.5)	15(11.2)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집중 지원	40(39.8)	35(26.0)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2(1.5)	9(6.7)
기타	3(2.2)	2(1.5)
무응답	0(0.0)	15(11.2)

1순위 기타의견 : 언어, 정서지원

2순위 기타의견 : 부모교육으로 특성이해, 문제행동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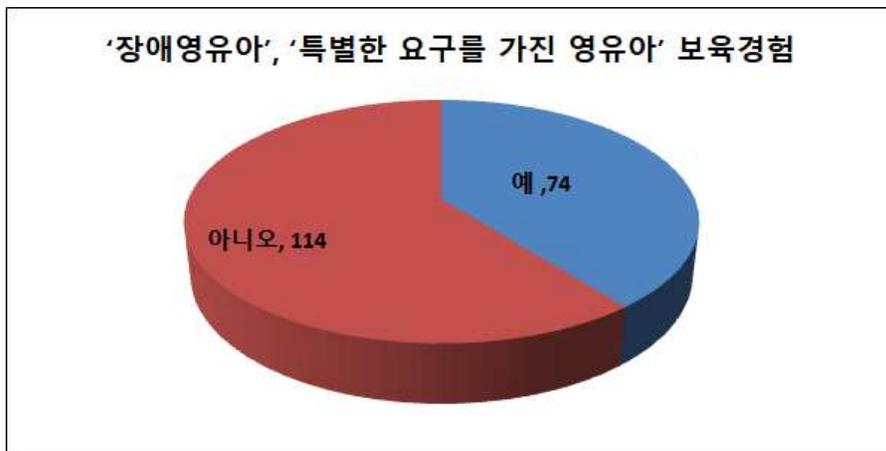
[그림 IV-5]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보육경험

- 현재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하고 계시거나 보육해본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39.4%인 74명이 보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보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의 1순위로는 언어 및 놀이치료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37.8%(28명)가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담당 보조인력 지원 29.7%(22명), 사례별 발달지연 전문상담 연계 서비스 제공 16.2%(12명), 학부모 및 가족 지원서비스 8.1%(6명), 특수교사 순회지원 4.1%(3명), 어린이집 시설설비 및 환경개선 지원 2.7%(2명), 교재교구 지원 1.4%(1명)로 응답하였음.

<표 IV-10>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보육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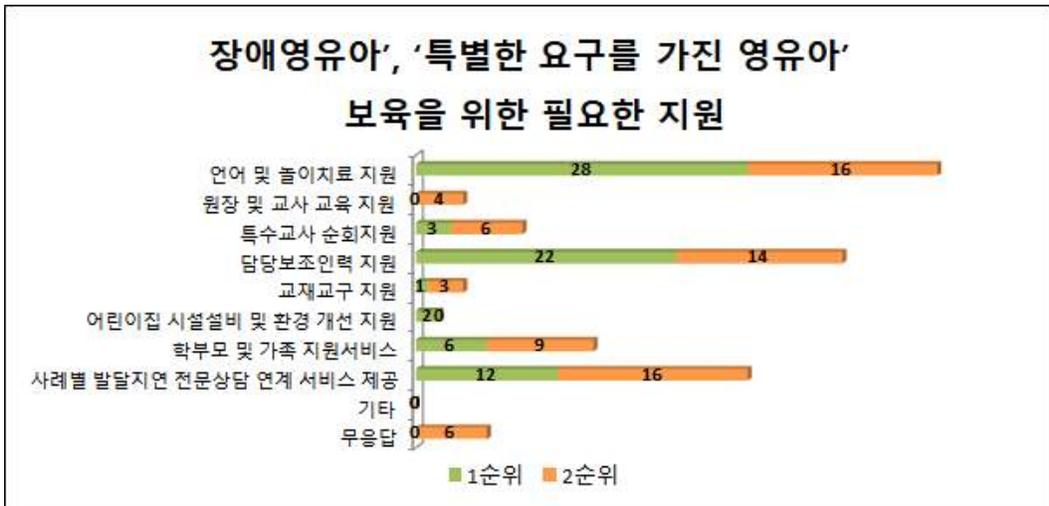
구 분		N	%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보육 경험	예	74	39.4
	아니오	114	60.6
	합 계	188	100.0



[그림 IV-6]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보육경험

<표 IV-11>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보육을 위한 필요한 지원

구 분	1순위	2순위
	N(%)	N(%)
전체	74(100.0)	74(100.0)
언어 및 놀이치료 지원	28(37.8)	16(21.7)
원장 및 교사 교육 지원	0(0.0)	4(5.4)
특수교사 순회지원	3(4.1)	6(8.1)
담당보조인력 지원	22(29.7)	14(18.9)
교재교구 지원	1(1.4)	3(4.1)
어린이집 시설설비 및 환경 개선 지원	2(2.7)	0(0.0)
학부모 및 가족 지원서비스	6(8.1)	9(12.2)
사례별 발달지연 전문상담 연계 서비스 제공	12(16.2)	16(20.6)
기타	0(0.0)	0(0.0)
무응답	0(0.0)	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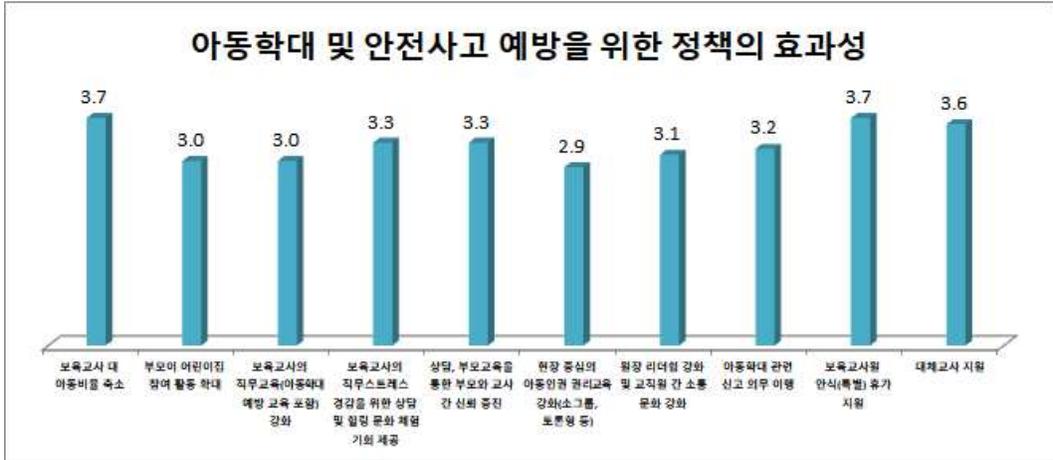
[그림 IV-7] '장애영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보육을 위한 필요한 지원

■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성

○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와 보육교직원 안식(특별) 휴가 지원에서 각각 4점 만점 척도에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교사 지원이 3.6점,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상담 및 힐링 문화 체험 기회 제공이 3.3점의 순으로 나타남. 다른 항목들도 대부분 4점 만점에 평균 3.0점 이상으로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목들 모두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음.

<표 IV-12>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

구 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효과 있음	효과성 높음	평 균
	N %	N %	N %	N %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4 2.1	4 2.1	32 17.0	148 78.8	3.7
부모이 어린이집 참여 활동 확대	6 3.2	43 22.9	91 48.4	48 25.5	3.0
보육교사의 직무교육(아동학대 예방 교육 포함) 강화	4 2.1	32 17.0	104 55.4	48 25.5	3.0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상담 및 힐링 문화 체험 기회 제공	3 1.6	24 12.8	76 40.4	85 45.2	3.3
상담,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와 교사 간 신뢰 증진	2 1.1	21 11.2	91 48.3	74 39.4	3.3
현장 중심의 아동인권 권리교육 강화(소그룹, 토론행 등)	11 5.9	47 25.0	80 42.5	50 26.6	2.9
원장 리더쉽 강화 및 교직원 간 소통 문화 강화	2 1.1	35 18.6	94 50.0	57 30.3	3.1
아동학대 관련 신고 의무 이행	3 1.6	23 12.2	102 54.3	60 31.9	3.2
보육교직원 안식(특별) 휴가 지원	3 2.0	4 2.7	26 17.6	115 77.7	3.7
대체교사 지원	2 1.1	9 4.8	45 23.9	132 70.2	3.6



[그림 IV-8]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

■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1.7%인 77명이 ‘영유아 문제행동 대처 및 행동관찰 방법’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 심리지원 및 인성교육 16.3%(30명), 경력별 보육과정 실행력 증진 또는 컨설팅 지원 9.8%(18명), 양육자면담 및 대인관계 기술 9.2%명(17), 최신 보육정책 소양교육, 교사의 관심분야에 따른 전문상담 지원에 각각 7.7%(14명), ESG기반 역량강화 교육 4.3%(8명), 안전 및 재난대비 1.6%(3명), AI기반 매체 이해교육 1.1%(2명), 아동권리 및 인권 0.5%(1명)순으로 나타남.

<표 IV-13>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구 분	N	%
전체	184	100.0
양육자 면담 및 대인관계 기술	17	9.2
최신 보육정책 소양교육	14	7.7
보육교사 심리지원 및 인성교육	30	16.3
안전 및 재난대비	3	1.6
영유아 문제 행동 대처 및 행동관찰 방법	77	41.8
아동권리 및 인권	1	0.5
AI기반 매체 이해 교육	2	1.1
ESG기반 역량강화 교육	8	4.3
경력별 보육과정 실행력 증진 또는 컨설팅 지원	18	9.8
교사의 관심분야에 따른 전문상담 지원	14	7.7



[그림 IV-9]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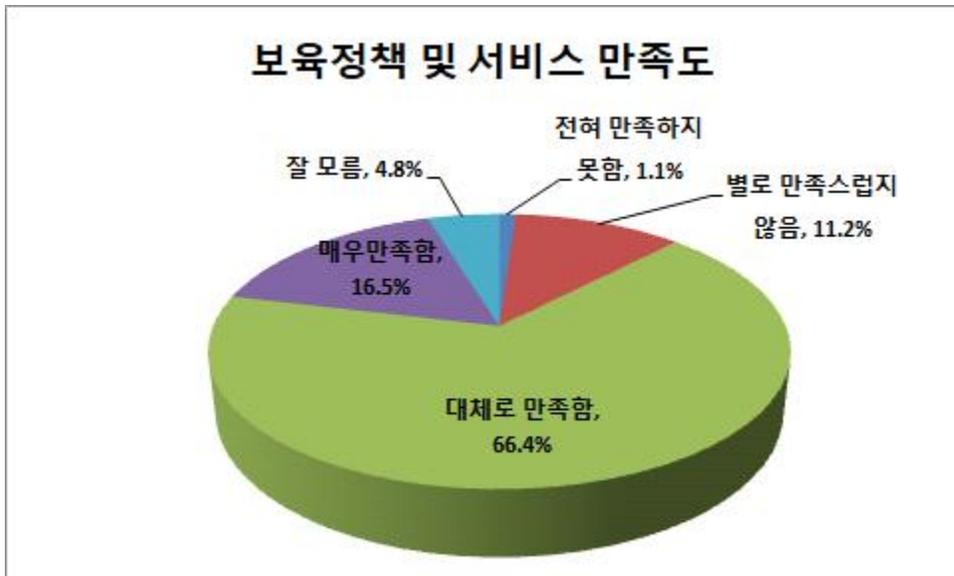
3) 연수구 보육정책 및 서비스

■ 연수구 보육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 연수구의 보육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보육교직원이 연수구의 보육정책 및 서비스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4> 연수구 보육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구 분	전혀 만족하지 못함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잘 모름	평균	총 계
	N %	N %	N %	N %	N %		N %
보육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2 1.1	21 11.2	125 66.4	31 16.5	9 4.8	2.9	188 100.0



[그림 IV-10] 연수구 보육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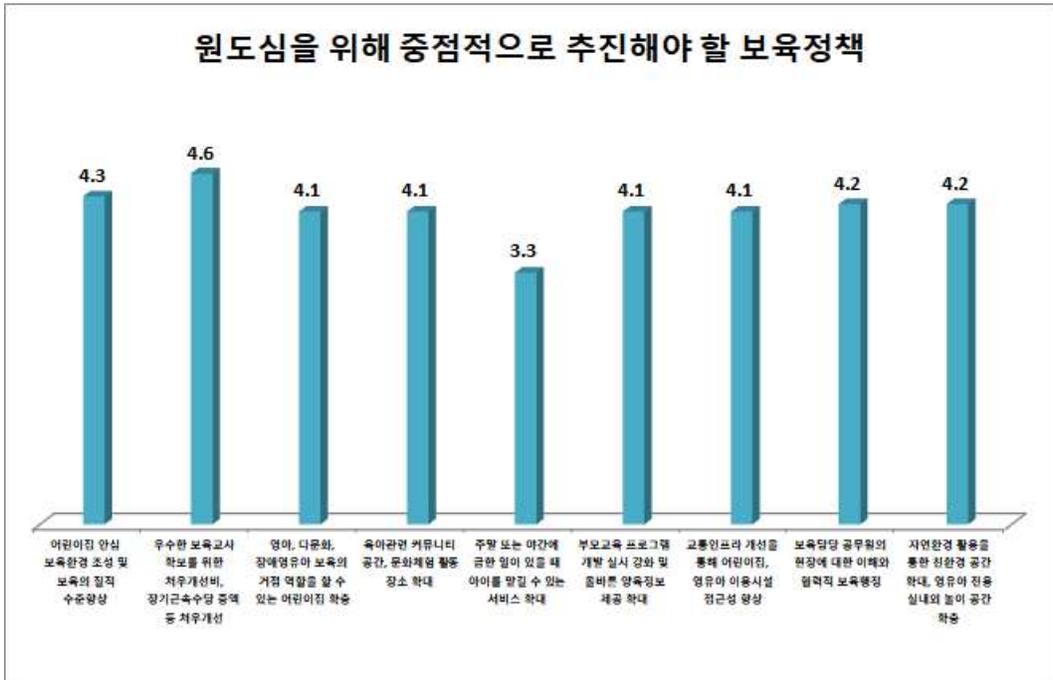
■ 향후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 연수구 원도심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장기근속수당 증액 및 처우개선’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냄.
- ‘어린이집 안심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이 평균 4.3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담당 공무원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협력적 보육행정’ ‘자연환경 활용을 통한 친환경 공간 확대 및 영유아 전용 실내외 놀이 공간 확충’에 대한 요구도가 각각 4.2점으로 나타났음. 또한 ‘영아, 다문화, 장애영유아 보육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육아관련 커뮤니티 공간, 문화체험 활동 장소 확대’,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강화 및 올바른 양육정보 제공 확대’,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 이용시설 접근성 향상’등에서 평균 4.1점으로 전반적으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영유아 관련 안전한 환경조성 및 문화 공간 마련 등에 대한 정책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IV-15> 원도심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N %	N %	N %	N %	N %	
어린이집 안심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0 0.0	1 0.5	27 14.4	79 42.0	81 43.1	4.3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비, 장기근속수당 증액 등 처우개선	0 0.0	3 1.6	14 7.4	39 20.7	132 70.3	4.6
영아, 다문화, 장애영유아 보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5 2.7	3 1.6	40 21.3	69 36.7	71 37.7	4.1
육아관련 커뮤니티 공간, 문화체험 활동 장소 확대	0 0.0	6 3.2	42 22.3	72 38.3	68 36.2	4.1
주말 또는 야간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아 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 확대	17 9.0	20 10.6	73 38.9	41 21.8	37 19.7	3.3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강화 및 올바른 양육정보 제공 확대	3 1.6	2 1.1	42 22.3	70 37.2	71 37.8	4.1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 아 이용시설 접근성 향상	2 1.1	3 1.6	40 21.3	77 40.9	66 35.1	4.1
보육담당 공무원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협력적 보육행정	0 0.0	4 2.1	41 21.8	59 31.4	84 44.7	4.2
자연환경 활용을 통한 친환경 공간 확대, 영유아 전용 실내외 놀이 공간 확충	0 0.0	2 1.1	31 16.5	77 41.0	78 41.4	4.2

기타의견 : 교사 대 아동비를 축소



[그림 IV-11] 원도심(취약보육)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

■ 연수구 보육환경 및 보육지원 의견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연수구 보육고환경 및 보육지원에 대해 ‘보육교직원 관련 의견’, ‘행정 편의 관련 의견’, ‘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견’, ‘취약보육 관련 추가 의견’을 제시함.

[보육교직원 관련]

- 보육교사 처우개선(급여 및 복지)
- 보조인력 충원
- 교사 대 아동비율 현실화(현행→축소)
- 충분한 대체교사 확보: 대체인력의 확보로 교사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아이들에게도 더 책임감 있게 교육 할 수 있다고 생각, 대체교사 신청 절차의 간소화 필요
-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 직원들의 힐링프로그램 다양화 :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특히 교사들을 위한 힐링 여행 프로그램
- 지속적인 교사교육과 부모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은 꾸준히 보육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에게 유용한 역할을 하지만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좋은 정보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실제적인 학부모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필요
- 교직원의 복지내용 더 확장
 - 한 구에서 몇 년(기준) 이상 했을(근무를) 경우 안식월이나 안식년 추천
 - 휴게시간 준수: 교사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휴식시간보다 퇴근시간이 조정되면 좋겠음.
 - 교사들의 역량강화 : 사례별 문제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지원해주며 모델링을 보여줘서 교사와 아이가 어렵지 않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음. 영유아발달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법과 올바른 교육

상호작용 교육

- 보육교사들을 위한 연수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힐링연수, 참여형연수) 다양화
- 아동학대의 재방방지 교육 프로그램 준수
- 교사교육의 중복으로 똑같은 교육의 반복적인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
- 사례중심의 주간안전교육에 만족

[행정 편의 관련]

- 연구활동 자료 업로드 간소화
- 행정서류 간소화 필요
- 재원 아동의 학부모 교육 확대
- 직무역량강화 교육 조정 필요(필수 교육을 제외한 중복 교육 줄임)
- 조리사 휴일 -> 연장확대 (2일, 3일 말고 5일 확대)

[어린이집 운영 관련]

- 교사에 대한 처우는 다른 구에 비해 만족스러움. 교재교구비 등 기타 지원은 정원수와 관계없이 지원되길 원함.
- 영유아보육관련 지원확대
- 처우개선비 인상
 - 어린이집 운영비 확대 지원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 만족한 점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원도심 활동화 방안에 대한 논의, 미흡한 점은 출산양육,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점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
 - 다른 원에서 이직한 교사의 교육이수 시간 미달로 처우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
 - 처우개선비와 연구활동비 인상: 처우개선비도 유치원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고 생각

[취약보육 관련]

- 다문화가정과의 소통에 필요한 교육과 인력이 더 필요함.
- 연수구에 다문화 외국인 아동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아이들이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닐 수 있도록 경제적(보육료지원으로 빠른 어린이집 입소) 언어적 (다문화 아동의 언어지원 수업이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원)지원 필요
- 외국인 아동의 증가로 보육 시 필요한 지원 (언어적인 소통, 프로그램, 문화교류 등)
- 다문화아동이 많아져서 차별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교육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의사소통 지원 및 발달장애 ADHD 영유아들에게 발달 지연 문제 행동에 대한 상담사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함
- 외국인 가정 아동에 대한 조금 더 진보된 서비스가 필요. 예를 들어 학교 입학 전 한글교육 지원,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경계에 있는 발달이 더딘 외국인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발달검사 및 심리검사, 재활 등 한국아이들이 발달센터에 가는 것처럼)
- 다문화가정 장애 영유아 보육의 어린이집 확충
- 다문화가정 통역지원
- 다문화가족의 지원 대책 필요

3. 심층인터뷰 결과

1) 취약계층 돌봄의 어려운 점

■ 의사소통의 어려움

- 연수구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등원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수구 원도심에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으로써 외국인 가정의 자녀 또한 증가하였음.
- 연수구의 옥련동에는 중동 아랍권에서 온 외국인 주민이 많아지고, 연수동에는 구소련 연합국에서 온 고려인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의 구성원에 큰 영향을 미쳤음.
-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음. 외국인 학부모 상담은 물론이고 아동이 어린이집 생활 언어도 소통이 안 되어 번역기에 의존하는 실태임.
- 그러나 예산의 문제로 개별 통역사 채용이 어려움.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 몇 개를 묶어서 통·번역사를 파견하는 지원이 필요함.

“우리동이 원도심이니까 취약계층이 많은데다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공단도 또 끼고 있고 동네 지역적인 특성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학부모와 가장 어려운 것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못하시니까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너무 힘들었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 안 돼서 우선은 구글번역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2023.09.22., 원장, 한○○)

“엄마, 아빠라는 말하기 시작하면서 0세, 1세, 2세 진짜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혼자놀이에서 연합놀리로 갈 때는 아이들이랑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말이 오고 가야 되고, 또 담임 선생님이 이제는 놀이위주이

기 때문에 놀이에 대한 개입은 선생님이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가 돼서 이제 놀이를 이어가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2023.10.11., 원장, 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문화배경 아이들이 이제 몇 프로 이상 되면 다문화강사 또는 코디네이터 이런 파견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린이집에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죠. 특별한 상담 기간, 입학 기간, 이럴 때라도 통역사를 배치해주면 좋겠어요. 번역기를 돌리니까 번역이 엉뚱하게 돼서 번역기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2023.09.22., 원장, 한○○)

“제일 어려운 점이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 상담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발송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가 주체자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하려면 적극적인지원에 있어서는 통역선생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2023.10.11., 원장, 김○○)

■ 교육과정의 어려움

- 외국인 어린이들이 늘어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짐. 원래 어린이집은 국가가 정해주는 표준보육과정만 운영하면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놀이과정만 운영하면 됨.
- 그러나 외국 어린이가 많은 반에서는 외국인 학부모의 욕구도 반영하여 놀이과정 속에 기초 한글과 숫자까지도 익히는 놀이과정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어려움이 큼.

“한국아이들만 있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표준보육과정 놀이과정에 따른 보육과 교육만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국가가 지정한 수준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놀 수 있도록 하는 놀 거리를 제공해 주자가 놀이과정의 최종 목표인데, 아이들은 마음껏 놀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러시아아이들하고 같

이 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놀이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놀이를 가지고 외국인아이들에게 우리 한국말을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가리키기 위해서는 또한 기초적인 산수 아까 말한 수학 수학적인 부분도 가르쳐줘야 돼.”(2023.10.11., 원장, 김○○)

“우리 한국 아가들한테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섞여서 하니까 러시아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깐 우리 애들이 ‘애 왜 자꾸 못 알아들어?’ 하면서 물어 봐요. 놀이하면서 협동 놀이를 해야 되는데 답답하다는 거야. ‘애는 왜 왔어?’하고 물어도 봐요. 너희들이 좋아서 많이 온 거야. 너랑 놀려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같이 놀아주고 알려주라고 하지요. 애들이 답답해해요. 3월 초에는 정말 애네들을 어떻게 놀이로 속으로 끌어들여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2023.09.22., 교사, ○○○)

“갑자기 러시아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잘 알아들으면 빨리빨리 끝나잖아요. 한국 애들 30분 할 거 외국 아가들한테는 1시간을 해야 해요. 솔직히 이게 같은 과정을 두고 한국아이들과 우리말을 모르는 러시아 아이들하고 같이 가르친다는 것은 많이 어려워요. 교구도 다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 문화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 인구가 줄어들어 인해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 집은 해가 갈수록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주민이 많은 일부 원도심 지역에는 외국인 주민 자녀들이 등원하면서 문을 닫는 속도를 늦추고 있음.
- 그러나 외국인 자녀들은 처음 어린이집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또래와 같이 하는 놀이과정이나 생활습관에서 오는 차이, 문화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기도 함.
- 예를 들면 또래에 비해 과격한 행동을 한다거나 연령에 비해 비속어를 사용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음.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기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지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부모들은 비교적인데 예의가 좀 없으세요. 문화차이인가요?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고 다른 아이 건데 간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가져가서 먹는다가나 몰래 먹는다가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 미안함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안 먹었다고 거짓말도 하고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기본이 아직 없어요.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도 던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취약해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뛰고,,,”(2023.09.22., 교사, ○○)

“우리 동에도 어린이집이 7개었는데 4개가 폐원되고 이제 3개 어린이집만 남았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지만 연수구는 원도심의 어린이집만 없어졌어요. 요즘 애기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애들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공백을 러시아 애들이 채워줬어요. 그래서 감사함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차이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외국인 학부모들은 밤늦게 문자를 보낸다가나 새벽 한시에도 문자를 보내고 3시에도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등원시킬 때도 담배를 피우면서 오거나, 유모차를 끌 때도 한 손에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2023.09.22., 원장, 한○○)

■ 대체인력 부족

- 연구 참여자들은 외국인 자녀가 많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예를 들면 대부분 교사들이 퇴근 후에 교육을 받는데 교사들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일과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거나 휴가 때 지원해주기를 희망함.
- 연수구는 긴급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교사 제도와 인력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음.

“우리 어린이집에 외국 아가들이 많은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보육교직원 공백 시 대체 인력 확보예요.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비워놓고 갈 순 없잖아요. 대체 교사 제도가 있어서 대체교사를 신청을 하는데 지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연수구에서 인력풀이라는 데도 안 될 때면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해요. 저희는 연장 반 교사도 있고 영아 보조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투입해서 해결하곤 해요. 어쨌든 좀 힘들죠.”(2023.09.22., 원장, ○○○)

“선생님들이 휴식이 필요해요. 소통이 어려운 아가들하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목이 다 쉬어요. 너무 힘든데 퇴근 후에 또 보수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필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런 교육을 일과 중에 받을 수 있게 대체교사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2023.09.22., 원장, ○○○)

“외국인 자녀가 많은 어린이집에는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통역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어린이집의 교사의 채용 기준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보육과를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보조 교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래서 통역 선생님은 어린이집 교사의 채용기준이 아닌 통역 선생님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2023.10.11., 원장, 김○○)

■ 원장 및 교사 역량

- 취약 계층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능력이나 소통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 중요함.
- 특히 외국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 나라의 문화나 특성, 민족의 특성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따라서 다문화교육 전문 기관이나 지역의 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강조됨.
- 또한 교사나 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들의 소모임 등을 지원하여 사례들을 모으고,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어쨌든 러시아 외국인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들은 제일 필요한 게 원장이나 교사 대상 연수예요. 어쨌든 아이들이 받았으면 이 아이들이 왔으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문화, 그리고 아이들의 그 특성, 부모님들에 대한 이해, 이러 기본적인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2023.09.22., 원장, ○○○)

“육아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디아스포라연구소와 연계해서 ‘다문화와 함께 감’ 이런 취지로 해서 교사연수를 했어요. 각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원장들이 모여서 강의도 듣고,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토의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 가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2023.09.22., 교사, ○○○)

“작년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외국인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다문화와 함께 감’ 사업이 좀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책지도사도 저희 어린이집에 오시고,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현장 방문하셔서 이제 3차 교육, 그리고 교사나 원장 대상 러시아어 공부모임도 했고, 교사 공부모임도 했고, 그리고 소모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함박마을을 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2023.10.11., 원장, 김○○)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 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듯이 어린이의 보육에 있어 모든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함.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도서관, 복지관,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노인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외국인 자녀들의 돌봄에 있어 보육기관의 요구에 맞춘 지역사회 기관 연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있는 다문화 기관과 연구 전문기관, 상담 기관, 언어 치

료 기관, NGO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육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함.

“저희는 모든 자원들을 다 많이 활용을 해요. 어쨌든 도서관 그리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보건소, 병원 이런 데도 다 필요해서 다 협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외국인 아이들이 많아서 무슨 연구소라든가 가족지원센터, 상담센터, 이런 곳과의 관계”(2023.09.22., 원장, 한○○)

“문제 행동에 대한 아이들의 지도법에 대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거나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2023.09.22., 원장, 한○○)

“지역사회의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함께 이끌어가는 모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역의 연계에 있어서 일단 제일 큰 장점을 가진 게 있다면 복지관하고 도서관이 가깝다는 거예요. 지역의 연계 협력 부분은 항상 메마름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기를 하는 바람이라서 노인 일자리를 이용하여 우리 아이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노인들한테도 모두 좋지요. 노인들은 우리 아가들만 봐도 행복해 하세요. 교구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 원에서 인력 비용 안 나가고 그런 노인인력에 대한 부분이 보육 예산뿐만이 아니라 노인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2023.10.11., 원장, 김○○)

2) 민족 및 지역에 따른 차별지원과 한시적 지원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UN아동권리협약 전문).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함.(UN아동권리협약 제1조)
- 우리나라는 이미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영유아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소득 무관 전계층)로 명시되어 있음. 또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음(보건복지부).
- 그러나 인천시는 연수구에 거주하는? 고려인 자녀 중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자녀만? 예산 소진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월 20만 원씩만 지원하고 있음.
- 이는 명백히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아동발달에서부터 초등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에까지 영향을 주어 외국인 주민의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실은 우리 아기들은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연수구에 등원하는 고려인 자녀만 지원해 주는 차별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시적으로만 지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아가들 발달에 따른 교육은 시킬 수 있게 해야지요. 연속지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언제 예산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고려인 엄마들도 지원이 안 되면 또 등원시키지 않고 가정보육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2023.09.22., 원장, 한○○)

“전체 정원이 66명인데 24명이 외국인이에요. 그중에 러시아애들이 20명.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들인데 전체 정원의 4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고려인 자녀 보육료지원이 컸던 것 같아요. 고려인 자녀 보육료지원이 전혀 안 되다가 한시적이지만 고려인 자녀 보육료가 지원이 되니까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현상이지요. 곧 초등학교도 가야되고 한국말도 배워야 학교생활도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2023.09.22., 원장, 한○○)

“만5세, 7세는 외국인아동도 인천시 전체 지원받고 있는데 그 이하의 연령의 고려인 아동들은 연수구만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시보육사업안내에 딱 나와 있는 것처럼 연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민족, 나라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요. 보육료 지원해서 아가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하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권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2023.09.22., 원장, ○○○)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올해 7월에 중단된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지금 20만원씩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원받기 전에는 어머님들이 100% 다 자부담을 했어요. 형제를 보내게 되면 거의 막 100만원 가까이를 내야 되는 학부모님도 계셨거든요. 어린이집 안 보내고 가정 보육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2023.10.11., 원장, 김○○)

3) 장애 어린이 및 특별 요구 어린이 발달 이슈

-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 중 장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달이 더딘 어린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의 치료를 위해 어린이집과 가정의 연계가 중요한데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부모와 협력이 되지 않아 아이의 치료가 더딤.
- 특히 외국인 학부모들은 자녀의 발달 더딤에 대해 한국 사회적응의 문제라고 판단하거나 언어의 탓, 개인의 특성으로 생각하고 등한시하거나 자녀의 더딤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발달 단계에 따른 치료의 어려움이 있음.
- 외국인 아동들은 KCDI 검사나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린이집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음.

“어린이 발달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발달이 조금 더 많이 느린 아이들 있잖아요. 또래에 비해서 대근육 활동이라든지 언어는 물론일 것이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애들한테 좀 디테일하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 아동들은 KCDI 같은 검사도 어린이집 차원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가 좀 떨어지는구나. 엄마에게는 천천히 가르쳐줘라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집도 어렵고 엄마도 수용이 잘 안되고 애가 외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발달이 좀 느린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애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2023.09.22., 원장, 한○○)

“우리나라 아이들은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이 느리거나 또는 어려운 아이, 경계선에 있는 그런 애가 제일 힘들게 해요.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바우처 지원을 받아요. 바우처 지원받고 있는데 어쨌든 가정과 연계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데리고 다녀요. 엄마가 시간이 없대. 회사 가야 된대. 그럼 빨리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고 선생님 찾으러 가고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가든지 그 약속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이 가서야 된다. 그런데 뭐 회사 오늘은 못 빠진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도 가정과의 협

력이 너무 이루어지질 않아서 여기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원장님 선생님이 해 봤자 가정에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는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의 정도가 변함이 없어요. 엄마가 신청만 해주면 어린이집으로 오니까 훨씬 편할 텐데 부모가 신청을 안 해요.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해도 가정에서 연계가 안 되면 안 돼요.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가들도 있어요. 조금 발달이 좀 늦거나 그런 아이들요. 고려인아이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애네들은 바우처 지원이 안 되니까 또 치료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 점도 좀 안타까워요. 아주 심하진 않지만 발달 그 단계에 못 미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좀 치료가 필요한데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못 받고 있어요. 발달 바우처는 한국인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그런 아이들은 더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신경 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2023.09.22., 원장, 한○○)

05

결론 및 제언

V. 결론 및 제언

1. 종합분석

■ 연수구 원도심의 현실을 반영한 돌봄 체계 필요

- 현재 연수구에서 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보육의 계층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원도심의 보육시설, 인력 등의 제반환경을 살펴봤을 때 신도시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황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수구의 원도심은 송도 신도시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시설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연수구 원도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소재한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80% 이상의 재원 아동이 외국인가정 혹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은 의사소통의 불편함, 문화의 차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연수구 상황에 적합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원도심의 현실을 반영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취약보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연계 필요

-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은 연수구 취약보육의 문제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취약보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지역사회와 도서관 등 문화자원,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자원, 근거리 병원 및 돌봄센터 등의 의료자원, 관내 NGO 단체와 연계한 서비스 자원 등을 다각적으로 연계하여 연수구의 취약보육 안전망으로써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연수구의 경우, 기초단위(구)에서 가장 많은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관내 대학교 인프라를 취약보육 자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관내 대학생들을 봉사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취약보육 관련 관내 학교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가능함.

■ 취약보육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필요

- 연수구 취약보육을 위해 보육교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다문화가정 또는 외국인가정 아동이 많이 채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관련 외국어를 익힐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함.
 - 함박마을의 경우는 러시아어 기초 회화, 옥련동 같은 경우는 아랍권 국적이 많으므로 아랍어 기초 회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계성 장애와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 강화, 관련 지식 습득의 기회 제공을 통해 진단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당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는 연수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업으로 예컨대 1주일에 1회 의무적으로 2시간씩 학습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방식이나, 보육교직원들이 학습공동체 형태 스스로 필요한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비형식 학습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2. 연수구 취약계층 보육 지원을 위한 과제2)

- 첫째,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약보육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5개년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관내 10개 군구의 상황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현실을 반영하는 보육통계가 필요함.
 - 특히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과 외국인가정 아동으로 구분되면서 일선 현장의 보육교사들에게 개념적으로도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부처 간에서도 다른 개념 정의로 인해 서로 다른 통계를 발표하고 있어 지역 단위에서는 통계적 자료의 접근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외국인가정의 경우 유형별 체류자격이 다양할 뿐 아니라,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아동들의 체류자격 역시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음.
 - 지역의 취약계층 보육과 관련한 통계적인 정보는 이들의 기초 사회화, 교육,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시급한 사안임.
 - 즉 취약계층 보육아동들의 성장 및 발달 현황, 그리고 이들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취약계층 보육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수구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취약보육정책을 수립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본 과제의 최종보고회에서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 둘째, 취약보육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구의 보육교직원들은, “다문화가정과의 소통에 필요한 교육과 인력이 더 필요함”, “지속적인 교사교육과 부모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은 꾸준히 보육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에게 유용한 역할을 하지만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좋은 정보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연구구의 취약보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한 필요가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특히 노인,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가족센터 등의 다문화 유관기관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해 통번역, 언어지원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예컨대 어린이집에 필요한 재원아동의 이주배경 모국어 사용이 가능한 심리상담 전문가 파견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취약보육을 위한 식단, 대체식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셋째, 취약보육의 요구에 맞춘 지역사회 기관들을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 참여한 연수구의 보육교직원들은, “연수구에 다문화 외국인 아동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닐 수 있도록 경제적 및 언어적 (다문화 아동의 언어지원 수업이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다문화아동이 많아져서 차별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교육비 지원 확대, 의사소통 지원 강화, 발달장애 ADHD 영유아들에게 발달지역 문제 행동에 대한 상담사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연수구 취약보육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 발달에 있어서 단회성, 일회성의 지원은 효과가 미미하므로,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특히 해당 어린이집의 근거리에 상담, 문화, 언어 등의 지원이 가능한 취약보육 안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특성 및 요구사항이 유사한 어린이집을 묶어서 권역별 취약보육 지원기관과 결연 등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넷째, 연수구 맞춤형 취약보육 협력모델 제도 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에 참여한 연수구의 보육교직원들은, “보육교사들을 위한 연수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힐링연수, 참여형연수) 다양화”, “다문화가정 장애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확충”, “사례별 문제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지원해주며 모델링을 보여줘서 교사와 아이가 어렵지 않게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줬으면 함. 영유아발달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법과 올바른 교육 상호작용 교육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연수구 어린이집이 함께 공동으로 취약보육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함.
- 보육교직원 주체들이 지역현안 관련 유사한 문제를 공유하면서, 해당 이슈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이 필요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거나 언어 지원, 상담 배치 등을 함께 지원하는 등 보육교직원이 주체가 되어 연수구 맞춤형 어린이집 협력모델 형성이 가능함.
- 지역사회 취약보육의 요구를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준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협소하게는 가정통신문이나 원아모집안내문 등의 번역문안을 공유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는 어린이집 상담 및 문화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영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연수구를 중심으로 한 취약보육의 협력모델은, 이후 유사한 문제 혹은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역에 확산될 수 있음.

참고문헌

■ 단행본 · 연구보고서

강은진 · 박혜원 · 최일선 외(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2022).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 요인 및 지원 방안. 2022년 이슈페이퍼 04호.

박창현 · 김근진 · 이은혜 · 배울미(2019).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최윤선 · 김태연 · 배성현(2020). 경기도 장애위험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개발.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법률 · 조례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960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37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40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306호]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7005호]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863호]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615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8218호]

■ 행정자료

인천광역시(2022). 인천광역시 제5차 중장기 보육계획(2022~2026).

인천광역시(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 학술지 · 학위논문

김우리 · 김지연(2016). 장애위험아동, 누구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경험과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1(3), 1-32.

박체희 · 황순영 · 차세진(2021). 장애위험 유아의 선별 및 진단 의뢰과정 실태와 유아교사의 인식. 교육혁신연구, 31(1), 363-386.

배민정(2020). 장애위험유아에 대한 일반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9(2), 23-38.

■ 전자문서자료 ·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보육정책DW시스템(<https://stat.childcare.go.kr/main/main.do?isMainPage=Y>)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인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https://www.ys-scc.com/>)

한국보육진흥원(<https://www.kcpi.or.kr/main.do>)

인천 연수구 취약계층의 보육지원 실태와 과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

소속의원 정보현 의원(대표)

김국환 의원

박정수 의원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오선영 디아스포라연구소 외부연구원

공동연구원 임지혜 디아스포라연구소 외부연구원

발행일 2023년 10월 00일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디아스포라연구소

인쇄처 ○○○

주 소

ISBN 000-00-0000-00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디아스포라연구소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